

광주시, 상생형 일자리 등 내년 국비 확보 총력전

이용섭 시장, 기재부 방문 지역핵심사업 예산 협조 요청 박병석 국회의원·김태년·주호영 원내대표 찾아 지원 당부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종호 행정부시장, 조인철 문화경제부시장 등이 국회를 방문해 막판 국비 확보전을 펼쳤다.

내년도 정부예산에 대한 국회심의 기간을 고려한 예산활동으로, 이 시장은 이날 국회방문에 앞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을 비롯한 예산심사관들을 만나 지역 핵심사업 관련 예산을 설명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이 시장과 시간부들은 국회를 방문해 박병석 국회의장과 정성호 예결위원장, 서동용·양항자 예결위원을 차례로 만나 시

주요 사업 예산에 대한 국회 증액을 요청했다. 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찾아가 예산 확보와 지역현안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당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도 호소했다.

이 시장은 특히 박병석 국회의장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지정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반구축 및 정착지원 ▲친환경 공기산업 육성 기반 구축사업 ▲광주 운전면허시험장 신설 등 3개 사업만큼은 반드시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정성호 예결위원장을 방문해 ▲RE100구현 에너지 AI통합 관제 구축사업 ▲AI 집적단지 3대 주력 산업분야 AI학습용 데이터셋 개발사업 ▲광주송정역사 증축 등 5개 사업에 대해 국비 증액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광주·전남 예결소위원회 서동용·양항자 의원의 만남에선 ▲데이터기반 디지털페어 그린 제조 플랫폼 구축 ▲광주 그린 스타트업 타운 조성 ▲국립 광주전통생활음악당 건립 등 10개 사업에 대해 예결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광주시는 국회단계 주요 증액사업인 35건 1061억원에 대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 또는 추가될 수 있도록 국회 의장단, 예결위원회, 지역 국

회의원, 중앙부처 등과 접촉하는 등 최대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광주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정부의 재정투자 방향인 미래성장 동력사업, 한국판 뉴딜사업 등 핵심투자 프로젝트에 초점을 맞춰 국비 확보 활동을 적극 전개한 덕분에 내년도 정부예산 국비 반영액을 올해보다 14%(3388억원) 증가한 315건 2조7638억원을 확보한 상태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 성과다.

이용섭 시장은 “정의로운 역사를 지닌 광주가 풍요를 창출하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특히 지난 2년간 다진 지역발전 인프라를 기반으로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구체적 성과들을 창출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소상공인 경영자금 대출 지원 받으세요”

광주시, 업체당 최대 2500만원

광주시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골목상권 특별보증 대출 지원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역 내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 등 58개 업종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이며 지원기간은 지난 2월부터 연말까지, 지원규모는 시·금융기관의 출연금의 12배인 총 432억원이다.

지원금액은 업체당 최대 2500만원이며 지원조건은 고정금리(3.0%/3년, 3.2%/5년)와 변동금리 2.03%(9월 기준) 중 자율선택으로, 거주기간 없는 원금 분할 상환이다. 추가로 대출일로부터 1년간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 시는 전년 대비 특별출연금 증액 및 보증 규모를 340억원에서 432억원으로 확대하고, 대출금리 인하(고정금리 기준 3년 상환 3.5→3.0% / 5년 상환 3.7→3.2%), 신용보증재단 100% 심사·보증 및 보증료 인하(0.8→0.7%), 저신용 등급자 대출지원 확대를 위한 심사기준을 조정했고, 5월부터는 한시적으로 1년간 대출 이자 전액 지원으로 확대 시행했다.

지원 신청절차는 대상 사업자가 광주신용보증재단 또는 금융기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신용보증재단에서 개인 신용도 및 사업장 확인 등의 심사 과정을 거쳐 보증서를 발급받아 해당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선박수리 지원센터 준공 목포해양대에 2913㎡ 규모

전남지역 중소 조선기업들에게 선박 수리기술부터 장비입대, 전문인력 양성까지 지원할 ‘선박수리 지원센터’가 18일 문을 열었다.

전남도는 이날 목포 해양대에서 목포해양대, 목포시, 목포해양경찰서, 대불산단경영자협의회, 삼진산단입주기업협의회 등 관련기관 및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선박수리 지원센터 준공식을 가졌다.

이날 준공된 센터 건물은 9000㎡ 부지에 2913㎡ 규모로 조성됐으며, 연구동과 시험동, 기업 입주 공간 등이 자리 잡고 있다.

그동안 ‘선박수리 지원센터’는 목포해양대 산학협력단에 소속돼 지난 2018년부터 선박수리에 꼭 필요한 역설계용 3D시스템을 비롯 43종의 특수장비, 선박수리 기업에 기술 및 자문, 워크샵, 세미나 등을 지원해왔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여성친화적 행복전남 퍼포먼스 2020 한국생활개선전남도연합회 한마음 교육이 18일 오후 진도군 의신면 솔바치진도에서 열린 가운데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동진 진도군수, 주옥선 전남연합회장, 도·시군 생활개선회원 등 참석자들이 여성친화적 행복전남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공사·출연기관, 도민행복 성과물 내야” 전남 농수산물식품 ‘아마존 전남브랜드관’ 수출 선적식

김영록 지사, 성과보고회서 지시

김영록 전남지사는 18일 2020년 공사·출연기관 성과보고회를 갖고, “지역 발전과 도민 행복 실현을 위한 근본 대책과 성과물을 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날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가진 성과보고회에서는 전남개발공사를 비롯한 17개 공사·출연기관이 도정 핵심시책과 연계된 기능이 있는 점을 고려해 한 해 동안의 주요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도 핵심 목표에 대한 비전과 추진 계획을 공유했다.

각 기관의 주요 성과는 ▲전남개발공사 ‘신안해상풍력 1단계 컨소시엄 참여’ ▲광주전남연구원 ‘포스트 코로나 기획연구’ ▲전남테크노파크 ‘투

자유지를 통한 일자리 창출’ ▲녹색에너지연구원 ‘해상풍력플랫폼 연구개발(R&D) 65억원 및 규제자유특구 65억원 수주’ ▲중소기업진흥원 ‘육성자금 추천 및 101억원 이자 완화’ ▲신용보증재단 ‘코로나피해 극복 총력 지원과 집중호우피해 지원’ ▲순천·강진의료원 ‘코로나19 대응 선별진료소 운영과 타 지역병상 나눔’ 등이다.

김 지사는 “공사·출연기관 경영평가가 기관 성과 전부를 대변할 수 없지만, 산하 공공기관을 동일 선상에서 바라보는 객관적 기준이 될 수 있다”며 “도민에게 보다 신뢰받기 위한 실효성 있는 근본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경영 효율화와 성과 달성 등 가시적인 결과물을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는 18일 aT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 장성 비축기지에서 미국 ‘아마존 전남 브랜드관’ 입점제품의 네 번째 수출 선적식을 가졌다.

‘아마존 전남 브랜드관’에는 현재 도내 농수산물 가공식품 수출기업 24개사의 50개 제품이 입점돼 판매중이며, 이번 선적한 물량을 포함해 지금까지 총 74만 달러의 수출을 달성했다.

특히 전남도가 전략품목으로 선정한 7개(고구마, 견과류, 유기농김, 전복, 유자, 매실, 장류) 스타상품 중 제품 개발 및 포장 디자인이 완료된 해남고구마식품(주)의 고구마말랭이와 (주)아라움에 생산한 견과류 스낵류 제품이 선적돼 12월말부터 본격 판매될 예정이다.

전남도는 지난 7월 도내 생산된 농수산물식품의 안정적인 대미 수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방정부로는 세계 최초로 미국 내 최대 온라인 플랫폼인

아마존에 식품 전문 브랜드관을 개설했다.

브랜드관에 입점된 24개 기업 중 13개 기업은 해외 수출 경험이 전혀 없는 기업이지만, 미국 수출을 위한 FDA 시설등록부터 온라인 마케팅 관련 컨설팅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현재 브랜드관에서 인기가 있는 유기농 표고분말과 유자차, 고추장, 배즙, 모듬해초의 판매 호조에 힘입어 당초 올해 수출 목표치인 50만 달러를 넘어선 74만 달러를 달성했다. 연말까지 90만 달러 수출을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진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앞으로 맛과 포장 디자인을 현지화하고, 코트라와 함께 영어 아마존 라이브 판매방송, 홍보 동영상 등 맞춤형 마케팅을 강화해 현지인들이 찾는 식품 전문 브랜드관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인권작품 공모전’ ‘할머니와 ...’ 최우수상

전남도의 ‘2020 인권작품공모전’ 영상 부문 최우수상에 ‘할머니와 나누는 여성인권 이야기’가 선정됐다. ‘할머니와 나누는 여성인권 이야기’는 누구나 알기 쉽게 여성인권운동의 역사와 중요성을 설명해 호평을 받았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슬로건’과 ‘UCC(영상)’ 등 두 개 부문으로 나눠 ‘일상생활 속 인권집행 차별사례, 인권의식 고취 및 인권 존중 문화 확산’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심사결과 ‘UCC(영상)’ 8편, ‘슬로건’ 9편 등 총 17편의 작품이 수상작으로 최종 선정됐다.

‘UCC(영상)’ 부문 우수상은 ‘누군가의 가족’이 차지했다. ‘슬로건’ 부문에선 ‘사람을 하늘처럼! 인권을 일상처럼! 전남을 으뜸으로!’가 최우수상에 이어 ‘차별없이 나란히 편견없이 단란히 인권전남 찬란히’가 우수상을 수상했다.

전남도는 수상작들에 대해 총 상금 300만원과 전남도지사 상장을 수여한다.

수상작은 전남도 누리집(www.jeonna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상식은 오는 30일 인권문화행사서 이뤄지며, 수상작 전시도 함께 펼쳐진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남원시립김병중미술관 기획전시
외롭고 쓸쓸하고 그리고 생각나고

갤러리2, 3

2020. 09. 08 - 2021. 1. 2

참여작가
—
감성빈
성애바
소빈
주소이

외롭고 쓸쓸하고 그리고 생각나고

전북 남원시 합파우길 65-14 T.063.620.5660